

기조강연

한일관계사학회의 회고와 전망

현명철(전 한일관계사학회 회장)

1. 머리말
2. 〈한일관계사연구회〉의 창립과 현황
3. 16대 회장단 30년의 족적
4. 우리 학회의 과제와 전망

【기조강연】

한일관계사학회의 회고와 전망

현명철(전 한일관계사학회 회장)

1. 머리말

2022년 올해는 우리 한일관계사학회가 창립된 지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어느덧 한 세대가 지났고 이제는 우리 학회의 역사를 정리해서 남겨두어야 할 시점이 되었다. 인간의 기억은 점차 희미해지기에 기록이 필요하다. 발표자에게 주어진 「회고와 전망」이라는 과제 역시 우리 학회의 역사를 간략하나마 정리해서 훗날 자료로 삼자는 현 김문자 회장의 취지로 받아들였다. 실제로 우리 학회의 5대 회장이셨던 오성 선생님과 12대 총무 김강일 선생님, 그리고 오랫동안 연구이사를 맡아주셨던 김보한 선생님은 타계하셨다. 언제나 각 기수 회장단의 지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그리하여 발표자는 손승철 선생님의 회고¹⁾를 근거로 우리 학회 30년 역사의 뼈대를 세워보고자 한다. 부회장 장순순 선생님의 기억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각 기수 회장단의 기억을 통해 살을 붙이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사진 자료가 첨부되면 좋겠다.

발표자는 창립 멤버는 아니지만 1992년 10월 일본에서 귀국하자 바로 손승철, 정재정 두 분 선생님의 부름을 받고 얼떨결에 창립 멤버들 자리에 슬쩍 끼어들어 초기 윤독회와 월례발표회에 참여할 수 있었다. 참으로 행복한 시절이었고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 일본사(明治維新史)를 전공한 필자가 한일관계사로 방향을 바꾸는 운명적 만남이었다고 기억한다. 1996~1997년에는 제3대 총무, 그리고 2009~2010년 제10대 2총무로 활동하였다. 그 후 수석편집위원으로 2014년까지 학회지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다. 그리고 제15대 회장(2019~2020)으로 선임되어 임무를 수행하였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 일본 유학에서 돌아온 지 꼭 30년이 지났고, 환갑을 훌쩍 넘어버렸다. 학회와는 가족과 같은 인연을 맺어왔고, 또 학회의 발전에 따라 내 학문도 발전하였다는 생각이 든다. 본 발표에서는 현 김문자 회장의 요청에 따라 필자의 경험을 토대로 가능한 객관적인 서술에 노력하면서 우리 학회의 역사와 현황 그리고 전망을 피력해 보고자 한다.

1) 학회의 역사에 대한 회고록으로는 손승철, 「한일관계사 25주년을 맞이하여」 (『한일관계사연구의 회고와 전망』 (2018, 경인문화사, 한일관계사연구총서 65, pp11~20)를 우선 참고하였다.

2. 〈한일관계사연구회〉의 창립과 현황

우리 학회는 〈한일관계사연구회〉라는 명칭으로 1992년 7월 창립되었다. 창립의 계기는 한일관계사 연구 부족에 대한 사회적 자각과 이에 따른 학문적 요청에 창립 멤버들이 부응한 것이었다고 이해한다. 창립 멤버들의 선구적 의식과 실천은 존경할만하다.

돌이켜 보면, 필자가 유학 중인 1990년 노태우 대통령이 방일 연설에서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의 성신지교를 언급하고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를 제시한 이후 한일 양국에서 한일관계사에 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기억한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90년 『對馬島 宗家文書 記錄類 目錄集』, 뒤이어 91년 『對馬島 宗家關係文書 書契目錄集』을 간행하였다. 이를 기념한 심포지움이 일본에서 개최되었는데 이때 모인 한국 학자들 사이에서 학회 설립이 처음으로 논의되었다고 한다. 마침 『通信使謄錄』 윤독회²⁾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구성원들이 중심이 되어 1992년 7월 발빠르게 〈한일관계사연구회〉가 발족하였고, 그해 9월 첫 월례발표회를 개최하여 우리 학회의 설립을 알릴 수 있었다. 더욱이 이 시기는 『對馬島 宗家文書』 연구를 위해 일본의 젊은 학자들이 한국에 들어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자료를 조사하던 때였으므로 창립은 참으로 시의적절하였다고 생각한다. 만일 우리 학회의 창립이 늦어졌다면 일본인에 의한 한일관계사 연구가 훨씬 오래 지속되었을 것이고 식민지 사관에서의 탈피나 이후의 여러 시대적 과제(독도, 교과서, 한일역사공동위원회) 등을 수행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한다. 당시 국사편찬위원회에 근무하셨던 이훈, 정성일 두 분 선생님은 일본 초서로 기록된 『對馬島 宗家文書』를 해독하는 최일선에서 활약하여 한일관계사 연구의 질을 크게 높여준과 동시에 일본 학자들과의 교류를 담당하는 학문의 외교관 역할을 하였다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 학회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자. 창립 회원 17명으로 시작한 우리 학회는 30주년이 지난 지금 회원 366명(대학교원 94, 연구원 85, 기관회원 22, 기타 165명)을 거느린 중견 학회로 성장하였다. 20배의 성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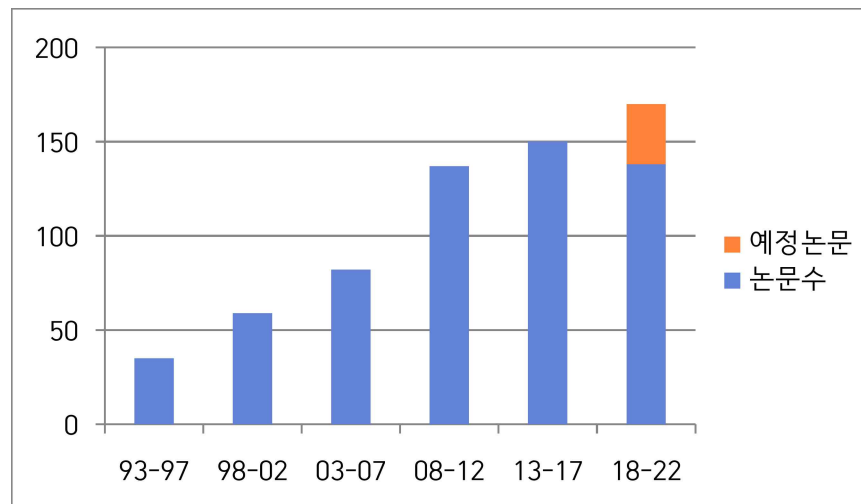
학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 월례발표와 학술대회, 학회지의 발간, 그리고 한일 양국 간 현안이 발생하였을 때 대중이 선동에 휩쓸리지 않도록 연구를 진행하고 학문적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창립 이후 2022년 9월까지 월례 발표회는 202회, 학술대회(심포지움)는 38회를 개최하였다. 산술적으로 년 평균 8회의 발표기회를 꾸준히 가져왔으니 기본에 충실한 학회라 자부할 수 있겠다. 특히 한일 양국 간의 역사 현안에 대한 학술적 대응에 노력하여 수차례 워크숍을 가지기도 하였다. 학술지는 『한일관계사연구』 74집(2021.12)까지 29년간 발표된 논문 수가 601편으로 호당 평균 8편의 논문을 싣고 있다. 산술적으로 년 평균 20편이 조금 넘는다. 초기 학회지는 년2회 발간을 목표로 삼았지만 투고논문이 없거나 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때로는 1회 발간에 그치기도 하였다. 그러나 98년부터는 꾸준히 매년 2회 발간하였다. 점차 회원이 증가하고 논문 투고 수가 늘어나 2007년부터는 년

2) 이 윤독회는 초대 회장인 하우봉 선생님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3회 발간으로 그리고 2018년부터는 년4회 간행으로 발행 횟수를 늘렸다. 이는 우리 학회의 성장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발표논문 수를 5년 단위로 나누어 표와 그래프로 보면 다음과 같다.

년도	1993~97	98~2002	03~07	08~12	13~17	18~21(22)	계
호수	1~7집	8~17집	18~28집	29~43집	44~58집	59~74집(4)	
권수	(7)	(10)	(11)	(15)	(15)	(16+4?)	74+(4)
논문수	35	59	82	137	150	138(+32?)	601(+32?)



발표 논문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이 두드러진다. 발표논문 외에 서평과 연구노트, 자료 소개 등도 30년을 합하면 100여 편에 이른다.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연구윤리의 제정과 논문 심사의 엄정함, 온라인을 활용한 투고 등이 이루어졌음은 물론이다. 또한 올해 학회 홈페이지도 새로 단장하였으며, 작년에 학술지 평가에서는 99.3점이라는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다. 조만간 학진 우수학술지로 선정될 것이라 기대한다.

학회의 창립과 현황을 우선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창립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 세대를 보낸 우리 학회의 족적을 1~16대 회장단 임기를 기준으로 시대 상황과 심포지움 개최를 중심으로 개략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발표자의 기억에 한계가 있으므로 많은 보완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3. 16대 회장단 30년의 족적

초대 : 1992년 초대 하우봉 회장(1992, 총무 홍성덕)이 선임되었다. 7월 학회가 발족식을 거행하고 9월 대우재단 세미나실에서 제1회 월례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우리 학회가 힘차게 첫울음을 토해낸 것이다. 뒤이어 『한일관계사 논저목록』³⁾을 펴내어 당시까지의 한

일관계사에 대한 목록을 정리·수록하여 연구의 시작을 알렸다. 창립의 기반이 되었던 윤독회는 『통신사등록』의 뒤를 이어 당시 여론의 관심을 모았던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가 작성한 『交隣提醒』을 강독하였으며, 이어 『朝鮮外交事務書』, 『分類紀事大綱19·26』, 『御鷹に付館守裁判方より之書状』, 『동래부사례』, 『館守日記(1870.09~윤10)』 등으로 이어져 오늘날까지 우리 학회의 일꾼을 양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총무가 윤독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학회에 일꾼이 필요할 때 쉽게 동원할 수 있는 인맥이 되고 있기도 하다. 이중 『交隣提醒』은 탈초·역주 작업을 거쳐 국학자료원에서 2001년 간행하였다⁴⁾.

2대 : 손승철 회장(1993~1995, 총무 정성일)은 초대회장이 연구년을 맞이하여 도일하였기에 1993년 7월, 창립 1년만에 자리를 이었다. 이때에 학술지 『한일관계사연구』 창간호가 현음사에서 간행되어 학회의 얼굴을 내보일 수 있었다. 학회의 명칭과 목적·사업 등 회칙과 규정이 정비되었다. 당시 회장과 총무 두 분 선생님의 헌신적인 활동이 눈에 선하다. 전국에 회원이 산재해 있었으므로 우리는 전국 학회지의 위상에 걸맞게 각 지역을 돌면서 월례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춘천·전주·부산 등 토요일 월례발표회와 일요일 답사라는 참으로 유익하고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모두의 좋은 추억이 되었다. 초기 학회는 서울의 회원들과 부산대·전북대·강원대의 회원들이 핵심이 되어 열성적으로 참여하였다고 기억한다. 월례발표회는 주로 서울역 근처의 대우재단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95년 〈일본사연구회〉(지금의 〈일본사학회〉)가 창립되었다. 80년대 후반에 도일하였던 유학생들이 차례로 귀국하여 지일(知日)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한 것이다. 일본사 전공자들이 귀국하게 되면서 무엇보다 사료 해독 능력이 신장되었다. 지금도 〈한일관계사학회〉와 〈일본사학회〉는 자매학회처럼 회원을 공유하고 심포지움을 함께 하기도 하면서 서로의 연구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후, 일본 원 사료를 읽을 수 있는 인재들이 늘어났고, 귀국한 유학생들이 그간의 연구 성과를 학회에 보고하고 논문으로 발표하기 시작하면서 종전의 한국사의 시각에서만 바라보던 한일관계를 양측의 입장에서 동시에 바라보았으며, 연구의 객관화를 가능하게 하였음은 학문의 발전에서 큰 성과라 하겠다.

3대 : 정재정 회장(1996~1997, 총무 현명철)이 취임하였을 때에 독도 문제가 여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학회는 국민 요구에 부응하여 1996년 처음으로 제1회 심포지움 〈한일 양국 간 영토인식의 역사적 재검토〉를 전쟁기념관에서 크게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로 『독도와 대마도』⁵⁾를 간행할 수 있었다. 이는 시대적 요구를 우리 학회가 수행하였다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이때의 학술대회는 매스컴에 크게 보도되었고 이후 한동안 우리 학회의 학술대회는 신문 지상을 통해 공지되어 학회의 위상을 대중에게 알리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다.拙者는 이때 총무로 활동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울 수 있었다. 무엇보다

3) 『한일관계사 논저목록』, 한일관계사연구회편, 현음사, 1993년.

4) 『역주 交隣提醒』, 한일관계사학회편, 국학자료원, 2001년.

5) 『독도와 대마도』, 한일관계사연구회편, 지성의 샘, 1996년.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회원들의 적극적인 자세와 학회에 대한 열정을 배웠으며, 이는 지금까지 우리 학회의 저력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제2회 심포지움 〈조선 유구 관계사〉는 대우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으로 훗날 『조선과 유구』⁶⁾로 간행되었다. 1997년 제3회 〈역사적으로 본 한일 양국인의 상호인식〉⁷⁾은 국제심포지움으로 수행되었다. 한국과 일본이 서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일본 학자들을 초대하여 개최한 것이었다. 제4회 심포지움 〈한국과 일본 21세기를 위한 역사교육〉은 서울시립대에서 일본 東京學藝大와 공동으로 개최한 것으로 우리 학회의 기반을 굳게 하였으며 일본 학자들이 회원으로 많이 가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97년 학회의 이름을 〈한일관계사연구회〉에서 〈한일관계사학회〉로 바꾸었다. 이는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를 향한 첫걸음이었다. 당시 월례발표회는 시립대학에서 진행하였다. 월례발표회 안내는 우편으로 보내던 시절이었음을 기록해 둔다. 내용을 프린터로 출력한 후, 제일 위에 수신자 성명을 손으로 기록하고 봉투에 넣어 수신자 주소와 우표를 붙여서 보냈던 추억이 남는다. 물론 학회지도 학회 봉투에 넣어서 수신자 주소와 우표를 붙여 보냈었다. 라벨인쇄를 할 줄 몰라서 한글과일로 뽑아서 오려내어 정성껏 봉투에 풀로 붙였던 추억이 있다. 지금 메일로 월례발표회 안내를 하고, 출판사에 의뢰하여 학회지를 송부하게 된 변화는 너무 자연스럽게 찾아온 듯싶어서 언제까지 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냈는지 기억에 없다.

4대 나종우 회장(1998~1999, 총무 홍성덕) 때에는 지금까지의 활동을 정리하여 『한국과 일본, 왜곡과 콤플렉스의 역사1,2』⁸⁾를 출간하였다. 이는 양국관계에서 쟁점이 되는 54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한 것이어서 호평을 받았다. 고대에서 현대까지 회원들이 골고루 분포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한일관계라는 분야에서 이렇게 36명의 학자들이 공동으로 집필하여 책을 발간한 것은 국내에서는 처음이었고, 한일관계사 연구 부족을 질타하는 사회적 요청에 부응한 것으로, 한일 간의 역사 인식의 차이와 연구의 현황을 대중에게 알리는 쾌거였다. 이는 동시에 학회의 첫 수익사업이었고, 앞으로 우리 학회가 이런 주제를 명확하게 밝혀내겠다는 스스로의 이정표이기도 하였다. 당시 저자들의 동의하에 인세 수입이 몇 년간 학회로 들어온 것은 모두가 아는 비밀이다. 당시 총무 홍성덕 선생님의 노고가 눈에 선하다. 1999년 제5회 심포지움 〈조선시대 표류민을 통해 본 한일관계〉를 개최하였다. 점차 한일관계사의 범위와 시야가 확대되고 있었다. 그 시기 월례발표회 장소 문제가 대두되었었다. 그리하여 서울교대 등 이곳저곳 장소를 찾아다녔고 총무의 고생이 많았다고 기억한다.

5대 오성 회장(2000~2001, 총무 김세민)이 되면서 월례발표회 장소는 세종대로 안정되었다. 이 시기 『한일관계사연구』 12집부터 현음사를 떠나 국학자료원에서 발간하게 되었

6) 『朝鮮과 琉球』, 대우학술총서450, 하우봉·손승철·이훈·민덕기·정성일, 도서출판 아르케, 1999년.

7) 『한일양국인의 상호인식』, 한일관계사학회편, 1998년.

8) 『한국과 일본, 왜곡과 콤플렉스의 역사(1.사회·문화편, 2.정치·경제·군사편)』, 한일관계사학회 지음, 자작나무, 1998년.

다. 이유는 비용의 문제였다고 한다. 2000년 제6회 심포지움 〈사상사적 측면에서 본 한일 관계〉가 개최되었으며, 제7회 〈유길준과 한일관계〉 국제심포지움은 하남시의 유길준 후손(유상덕 氏)의 협조를 얻어 개최하였다고 기억한다. 제8회 국제심포지움은 〈일본의 역사 왜곡과 교과서 검토〉이었다. 이 심포지움은 2000년 일본 후쇼샤(扶桑社) 교과서 파동으로 한일관계와 교과서 기술에 대한 분석 여론이 높아진 시기에 개최된 것이었다. 당시 우리 학회는 교육부의 교과서 분석팀에 합류하는 등 시대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였고 그 경험을 정리하여 개최할 수 있었다. 아는 당시로서는 국내 처음으로 일본 교과서를 분석하는 심포지움이었기에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또한 잠시 국내에 온 일본 학자들을 발표자로 선정하여 적은 비용으로 국제학술대회를 행할 수 있었음을 기록해 둔다. 일본 교과서에 잘못 기술된 우리 역사상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비판한 것은 우리 학회의 위상을 올리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2001년에는 학회창립 10주년을 기념하여 제9회 〈한일관계사연구의 회고와 전망〉 심포지움을 개최할 수 있었다. 이는 『韓日關係史研究의 回顧와 展望』⁹⁾으로 간행되었다. 5대 회장이셨던 오성 선생님은 안타깝게도 타계하셨다.

6대 민덕기 회장(2002년, 총무 한문종) 때에는 2002 월드컵 공동개최기념으로 제10회 심포지움 〈조선통신사〉를 개최하였다. 이는 교과서 문제로 인하여 반일·반한 여론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 대립과 갈등을 넘어 우호와 교린의 시대를 재조명하여 균형 잡힌 역사 연구를 지향하자는 학회의 취지를 천명한 것이었다. 이는 적절한 기획이었고, 이 심포지움을 통하여 일본에도 우리 학회의 모습을 부각시킬 수 있었다고 판단한다. 뒤이어 제11회 〈한일관계사의 제문제〉, 제12회 국제학술대회 〈조선시대 한일관계와 왜관〉등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월례발표회를 송파문화원을 임대하여 개최하기 시작하였다.

7대 손승철 회장(재임, 2003~2004, 총무 신동규)은 6대 민덕기 회장이 연구년을 맞이하여 출국하게 됨으로 1년 만에 선임되었는데 2대 회장에 이어 재임한 것이다. 손승철 선생님은 언제나 궁할 때마다 우리 학회의 기둥이 되어주고 있다. 이 시기에 특이한 점은 총무 신동규 선생님이 홈페이지 작성에 재주가 있어서 우리 학회 홈페이지를 점차 실용화시켰다는 점이다. 다른 학회보다 한 발 앞선 시대의 변화를 체감하는 일이었다. 학회 홈페이지에 들어와 학회의 활동을 확인하고 발표문을 다운받아 미리 읽어보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었다. 2003년 제13회 〈『조선왕조실록』 속의 한국과 일본〉, 2004년 제14회 심포지움 〈한일도자 문화의 교류양상〉등 활발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학회지 『한일관계사연구』가 국학자료원을 떠나 논형에서 간행되었다. 발간비를 절약하기 위함이었다. 이 시기에는 제1기 한일역사공동위원회가 개최되어 역사문제로 인한 갈등을 바로잡기 위한 양국 역사학자들의 노력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시절 일본 교과서 기술과 한일관계사 및 우리 학회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기대가 증가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으며, 이는 우리 학회 발전의 자양분이 되었다.

9) 『韓日關係史研究의 回顧와 展望』, 한일관계사학회편, 국학자료원, 2002년.

8·9대 연민수 회장(2005~2008, 총무 남상호)은 연임하여 4년간 임무를 수행하였다. 학회지 『한일관계사연구』가 22집부터 논형 출판사를 떠나 경인문화사에서 간행되게 되었다. 한편, 2005년 제1기 한일역사공동위원회가 마무리되어 『한일역사 공동연구 보고서』 전6권이 배포되었다. 보고서의 내용이나 공동위원회의 결과에 대한 갑론을박이 일어나, 한일관계사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고, 우리 학회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이 우리 학회 성장의 자양분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2006년에는 우리 학회지 『한일관계사연구』가 한국연구재단의 학술등재지가 되어 학술지의 격이 높아졌다. 회원들이 더욱 늘었으며 발표와 투고를 원하는 사람도 많아졌다. 이에 따라서 학회지 『한일관계사연구』를 1년에 3회 발간(2007)하게 되었으며, 학회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다.

2005년 제15회 〈충숙공 이예의 역사적 재조명〉 학술대회는 울산광역시의 지원을 받아 울산에서 개최하였으며 이예의 후손들의 협조를 받아 좋은 답사를 행할 수 있었다. 『통신사 이예와 한일관계』¹⁰⁾를 발간하였다. 제16회 〈동아시아 속의 고구려와 왜〉 학술대회가 개최되어 좋은 발표가 이루어졌으며 『동아시아 속의 高句麗와 倭』¹¹⁾를 발간하였다. 2006년 우리 학회는 『한일관계 2천년, 보이는 역사, 보이지 않는 역사』¹²⁾ 3책을 출간하였다. 이는 98년 발간하였던 『왜곡과 콤플렉스의 역사』의 증보개정판이라고 보아도 좋겠다. 54명의 연구자가 90가지 주요 쟁점들을 다루었다. 역시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기에, 이 책은 고등학교 현장에서 많이 활용된 것으로 안다. 2006년 제17회 〈동아시아의 영토와 민족문제〉를 개최하였으며, 『동아시아의 嶺土와 民族問題』¹³⁾를 발간하였다. 2007년 제18회 〈전쟁과 기억의 표상으로서의 한일관계〉를 개최하여 『전쟁과 기억 속의 한일관계』¹⁴⁾를 발간하였으며, 2008년 제19회 〈일본 역사교과서 서술과 문제점〉 학술대회와 결과물 『일본역사서의 왜곡과 진실』¹⁵⁾을 발간하였다. 또 이 시기에 제2차 한일역사공동연구 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였다.

10대 이훈 회장(2009~2010, 총무 장순순·현명철) 때에는 2인 총무제를 도입해 보았다. 이는 총무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의견에 따라 분담이 이루어진 것인데 당시 2총무의 역할이 주로 지금의 편집위원장 역할이었다. 원래 학회지 담당 업무는 편집이사가 담당해야 하는데 투고료·심사료·게재료 등 비용문제가 연동된 일이기에 창립 이래 편의상 총무가 담당해 왔던 것이며, 총무의 업무가 과중되는 이유가 되었다. 그래서 제2총무를 두어 논문의 수합, 심사의뢰, 심사서 수합, 편집위원회 개최, 출판사 송부 및 학회교정 등을 담당하게 하여 총무의 부담을 줄이도록 시도하였다. 이 시도는 효과적이어서拙者는 14년까지 이 일을 담당하였다. 그 후 나행주 선생님이 규정을 정비하여 정식 편집위원장이 되었다. 나행

10) 『통신사 이예와 한일관계』, 한일관계사학회, 새로운 사람들, 2006년.

11) 『동아시아 속의 高句麗와 倭』, 한일관계사학회편, 경인문화사, 2007년.

12) 『한일관계 2천년, 보이는 역사, 보이지 않는 역사』(고중세·근세·근현대 3책), 한일관계사학회편, 경인문화사, 2006년.

13) 『동아시아의 嶺土와 民族問題』, 한일관계사학회편, 경인문화사, 2008년.

14) 『전쟁과 기억 속의 한일관계』, 한일관계사학회·동북아역사재단편, 경인문화사, 2008년.

15) 『일본역사서의 왜곡과 진실』, 한국사연구회·한일관계사학회 편, 경인문화사, 2008년.

주 선생님은 연구윤리, 투고규정 등 당시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표절 문제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규정을 정비함으로 학회 회칙에 합당한 체계를 갖추었으며 지금까지 편집위원장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담당해 주고 있다. 학회에 대한 사랑과 열정에 고마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2010년 제20회 〈한일 역사 속의 전후처리〉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시대별 화해의 조건을 검토해 보았다. 2010년에는 제2차 한일역사공동연구 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어 『제2기 한일역사 공동연구 보고서』(2010) 전7권이 간행 배포되었다. 한일관계사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또한 증가하여 우리 학회 발전의 자양분이 계속 공급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11대 한문중 회장(2011~2012, 총무 장순순) 때에는 2011년 제21회 〈일본 역사교과서의 분석과 역사교육의 실태〉, 2012년 제22회 국제학술대회 〈조선시대의 한국과 일본〉을 개최하여 『조선시대의 한국과 일본』¹⁶⁾을 간행하였다. 이때의 학술대회는 학회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계획된 것이며, 강원대에서 한일관계사학회의 주관으로 일본의 ‘조선왕조실록강독회(일본 東京지역의 연구모임)’와 ‘세종실록강독회(일본 九州지역의 연구모임)’와 공동으로 개최한 국제학술대회였다. 우리 학회는 학회 초기부터 일본 연구자들과 학문적 연구의 장을 만들어 왔고 학문적 교류를 많이 해왔는데, 국제학술대회의 공동 개최는 그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하겠다. 제23회 학술대회는 〈임란직전 경인통신사행과 귀국보고 재조명〉을 주제로 개최하였으며 결과물로 『1590년 통신사행의 귀국보고 재조명』¹⁷⁾을 발간하였다.

12대 정성일 회장(2013~2014, 총무 김강일) 때에는 2013년 제24회 〈왕인(王仁)박사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역사인식〉 심포지움을 영암군, 왕인문화연구소와 함께 개최하여 지방사의 연구에 도움을 주었다. 2014년 제25회〈조선의 대외관계와 국경지역 사람들〉 학술대회는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개최하였다. 월례발표회는 주로 경기대에서 열렸다. 12대 총무 김강일 선생님은 이후 학회 정보이사로 활동하면서 홈페이지 관리에 오랫동안(2018년까지)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는데, 2019년 안타깝게도 타계하셨다.

13대 남상호 회장(2015~2016, 총무 이상규) 때에는 2015년 제26회〈한일수교 50주년 상호 이해와 협력을 위한 역사적 재검토〉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하였는데, 이 대회는 이틀에 걸쳐 The K-Hotel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학술대회 후 『한일수교 50년, 상호이해와 협력을 위한 역사적 재검토 1·2』¹⁸⁾가 발간되었다. 이어 제27회 〈일본의 패전과 한국 - 역사교육, 민중의 시점에서 -〉, 그리고 2016년 제28회 〈동아시아 3국 간의 사신(使臣) 외교〉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14대 김동명 회장(2017~2018, 총무 이상규·허지은) 때에는 2017년 제29회 〈정유재란과

16) 『조선시대의 한국과 일본』, 한일관계사학회, 경인문화사, 2013년.

17) 『1590년 통신사행의 귀국보고 재조명』, 한일관계사학회편, 경인문화사, 2013년.

18) 『한일수교 50년, 상호이해와 협력을 위한 역사적 재검토 1·2』, 한일관계사학회편, 경인문화사(총서19~20), 2017년.

동아시아〉 국제심포지움을 경기대에서 개최하였고, 제30회 심포지움은 한일관계사학회 창립 25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움으로 〈한일관계사 회고와 전망〉을 2대 및 7대 회장이었던 손승철 선생님 정년기념을 겸하여 강원대에서 개최하였다.¹⁹⁾ 2018년에는 제31회 〈조선 후기 대일관계, ‘교린의 길’을 묻다〉라는 제목으로 초대 회장이었던 하우봉 선생님의 정년을 기념하여 전북대에서 개최하였다. 회원들은 오랜만에 전주 답사를 할 수 있었고 전주의 명물 콩나물국밥을 먹으며 추억에 잠겼다. 이때 하우봉 선생님은 후학의 연구를 위해 1000만원을 쾌척해 주셨다. 이를 기회로 가능하다면 정년을 맞이하는 회원들의 학문을 기념하는 학술대회를 갖자는 의견이 대두하여 제32회 〈메이지 유신과 한일관계의 변용〉²⁰⁾을 선문대 이기용 선생님 정년 기념 기획심포지움으로 선문대에서 개최하였다. 제33회 〈고대 한일관계와 도래인〉의 학술대회는 연민수 전 회장님의 노력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기억한다. 이 시기에 등재지 계속신청이 있었는데,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국민대에 모여서 작업을 하였고 행정적 실수가 있었으나, 등재지로 계속 선정되어 안도하였던 추억이 있다. 또 우리 학술지가 1년에 4회로 발행 횟수가 증가하였다. 이는 우리 학회 회원이 증가하고 투고 논문이 늘어났기 때문이었다. 인문학이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는 상황에서 우리 학회지가 발행 횟수를 늘리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었다.

15대 현명철 회장(2019~2020, 총무 허지은) 때에는 2019년 제34회 〈역사교육과 한일관계사〉를 교원대 김은숙 선생님의 정년을 기념한 기획심포지움으로 교원대에서 개최하였다. 이때에도 김은숙 선생님이 기부금을 쾌척해 주셨다. 월례발표회는 서강대에서 개최하였지만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후는 ZOOM을 이용하여 온라인상에서 개최하였다. 제35회 〈역사적으로 본 한일 양국의 갈등과 화해〉, 제36회 〈근세 한일관계의 실상과 허상 -불신과 공존, 전쟁과 평화-〉 등의 학술대회도 온라인상에서 ZOOM을 이용하여 개최되었다.

한편 이 시기는 한일관계가 가장 어려운 시기였다고 기억한다. 위안부 합의 파기와 일본의 수출 금지로 야기된 양국의 갈등은 양국의 교류 자체를 어렵게 만들었으며, 반일여론이 극에 달하였다. 일본 학자들과의 교류도 사실상 중단되었다. 한일 간의 하늘길이 막혔기 때문이었다. 2020년 제36회 학술대회 〈교린의 길, 한일간의 무역을 묻다〉는 이러한 갈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한 기획이었다. 또한 이 학술대회는 부산대 김동철 선생님과 영산대 최영호 선생님의 정년을 기념하여 부산에서 성대하게 개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역시 covid19로 말미암아 온라인상에서 ZOOM을 이용한 모임에 그쳤으며, 동북아재단 지원비를 일부 반납하였다.

이 시기에 타 학회에서 시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술지 송부 방식이 바뀌었다. 즉 회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사람에게만 책자를 우송하고 나머지 회원들에게는 PDF 파일로 전송하는 시스템이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현 16대 김문자 회장(2021~2022, 총무 이승민) 때에 새롭게 개정된 등재지 규정에 의해

19) 『한일관계사연구의 회고와 전망』, 한일관계사학회편, 경인문화사, 2018년.

20) 『메이지 유신과 한일관계의 변용』, 한일관계사학회편, 경인문화사(67), 2019년.

계속 신청을 하였다. 상명대에서 모여서 등재지 계속 신청 서류를 작성하였다. 총무가 탈진할 정도의 열정을 기울인 결과 99.3점이 넘는 좋은 점수로 등재지가 유지되어 조만간 우수학술지 선정을 기대하게 되었다. 한편, 2021년 해양대학교와 공동으로 37회〈해양 해역으로 본 한일관계 : 갈등과 공생의 동아시아〉를 개최하였다. 또한 학회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2022년 오늘의 심포지움이 기획되었다.

이상 1992년 창립 이후 2022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학회의 역사를 개략적으로 살펴 보았다. 정리하면서 벌써 기억과 기록에 차이가 있는 점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다. 내 자신의 기억이 검증되어야 한다는 사실에서 역사를 공부하는 데 겸손함이 필요함을 절감하게 된다.

앞으로 각 회장단별로 시대적 문제와 활동을 사진을 첨부한 기록을 모아 학회 역사를 정리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4. 우리 학회의 과제와 전망

이하는 필자에게 부여된 우리 학회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 감히 자유롭게 서술해 보겠다. ‘성신지교’를 언급하고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를 추구하였던 시대 상황에서 창립된 우리 학회는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와 일본의 우경화 경향, 그리고 독도 문제 등의 현안에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성장해 왔다. 한일역사공동위의 출범 등도 우리 학회의 존재 의의를 부각시켰다고 생각한다. 또한 국내적으로 한국근현대사 과목의 개설과 동아시아사 과목의 개설 등 역사에 대한 관심의 증가, 일본사와 한일관계사의 수요 증대도 학회 성장의 자양분이 되었다.

그러나 covid19의 창궐과 한일 간의 정치·외교적 단절은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를 던져 준다. 우리 학회 창립회원 강창일 선생님은 주일대사로 일본에 부임하였는데 한국 정부에 불신을 갖는 일본 정계에서 냉대를 받아 성신우호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였고, 대만 해협을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된 요즘, 권위주의 체제의 국가와 민주국가와의 대립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일본과의 우호 협력은 더욱 중요성을 띠게 되었다. 마치 30여 년 전의 한일관계를 보고 있는 듯한 기시감이 든다. 한일 양국 정상이 오랜만에 만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는다. 우리 학회는 다시금 반일의 시대를 극복하고 우호의 시대를 여는 데에 일조해야 하며, 동시에 과거를 정확히 이해하고 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시점에 되돌아 온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학회 창립의 원점에서 다시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과제가 주어진 것으로 파악해 본다.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개인적 견해를 피력해 보고자 한다.

1) 회원 확보와 개방성, 연구의 대중화

학회의 가장 큰 과제로 회원의 확충 문제를 들고 싶다. 인문학의 위기 속에서 전체적으

로 역사학을 전공하는 연구자(석·박사) 층이 줄어들고 있고, 인구 감소에 따라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대학에 취직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유능한 인재가 학문의 길을 떠나는 경우도 보인다. 거대한 흐름을 우리 학회가 바꿀 수는 없다. 이를 극복할 방안은 개방성과 연구의 대중화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첫째는 아마추어 향토사가들 혹은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모아 사료 모임을 많이 만들고 학술논문이 아닌 준논문(?)을 발표하게 해서 회원을 확보하는 방안은 어떨까 생각한다. 대중이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스토리텔링의 역사서를 만들어 내는 데에 우리 연구자가 참여하여 도움을 주는 스터디 그룹을 형성하여 이 연구모임에서 책을 발간하는 것이다. 근세를 예로 들어보면 〈임진왜란 이야기〉, 〈왜관 이야기〉, 〈표류민 이야기〉, 〈통신사 이야기〉 등 대중과 공유할 수 있는 책을 발간할 수 있도록 학회가 연구모임을 만들어 집필자들을 사료적으로 지원하고 집필자들을 학회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한다. 기존 윤독회를 발전시켜 사료 번역 작업을 통해 그 결과물로 사료집·자료집을 발간하는 것도 연구 대중화를 위한 방안이라 생각한다. 장기적 과제와 전망으로 제시해 둔다.

둘째는 학문적 입장에서 우리 학회는 〈동아시아 대외관계사〉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만을 시야에 넣게 되면 편협될 우려가 있으며 반일과 친일의 프레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각 시대의 외교 행태를 공동 연구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미 학회 회원 중에는 대명외교·대청외교·대여진외교 전문가들이 있어서 우리의 시야를 넓히는 데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더욱 장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는 인터넷 검색이 일반화 되는 시대에 위키백과 등에 한일관계사 연구 결과를 꾸준히 업데이트 시키는 일이다. 가끔 검색을 해 보면 아직도 일제 강점기의 인식이 반영된 연구가 그대로 남아 있다. 이런 연구들을 학회 차원에서 수정하여 일반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2) 재정

현재 우리 학회의 재정은 타 학회와 비교하여 탄탄하다는 평을 받는다. 앞으로도 지금 그대로 절약하면서 운영하면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처음 창립되었을 때, 우리는 가난한 신생 학회임을 충분히 자각하고, 학회 재정 마련에 힘을 기울였다. 주요한 것은 각 회장단의 솔선수범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심포지움의 발표비의 일부를 기부받기도 하였고, 앞서 언급한 바 수익 사업으로 책 발간, 월례발표회 다과를 회장의 사비로 충당 등은 역대 총무님들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학술지 지원을 받은 것과, 학술대회 개최에 한국연구재단, 동북아역사재단의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손승철 선생님을 통한 한일문화교류기금의 후원을 받은 것 등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굳게 뭉칠 수 있는 학회가 우리 학회가 아닐까 한다. 특히 학술상을 위한 경비가 확보되어 있다. 학술상 제정을 위한 전임 회장단의 기부금은 이후 후임 회장단들이 교체시 학술상을 위한 기부금을 내는 전통으로 남게 되었다. 일본 회원인 나카무라 슈야 선생님도 이에 동조하여 기부금을 낸 바 있다. 초대 회장인 하우봉 선생님은 정년퇴임 학술대회에서 후학들의 학술 연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과 함께 기부금을 쾌척해 주

셔서 학술상 기금이 더 충분히 확보되었다.

앞으로도 수익사업을 다양하게 전개하여 학회의 자금이 더욱 풍성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신진연구자를 위한 대책

우수 학술상을 수상을 위한 경비가 확보되어 있는데 발표자는 이 경비의 일부를 학위과정 연구원들의 게재료 지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어느새 논문을 쓰는 것도 돈이 드는 세상이 되었다. 학위과정 투고자의 경우 심사료는 그대로 두고 심사에 합격한 경우 게재료만큼은 학회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이를 투고 규정에 삽입하여 알리면 학회의 광고가 되기도 하겠고 타 학회에서 따라 하게 될 것이며, 사소한 지원이지만 학위과정 연구자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그들이 우리 학회의 일꾼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한다.

5. 맺음말

이상 우리 학회 30년의 역사를 창립과 현황, 회장단 30년의 족적, 그리고 과제와 전망으로 나누어 발표하였다. 우리 학회의 역사를 개략적으로 정리하면서 벌써 기억과 기록에 차이가 있는 점을 발견한 부분이 많았다. 개인의 기억은 사방에서 검증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역사를 공부하는데 겸손함이 필요함을 절감하게 된다. 앞으로 각 회장단별로 시대적 문제와 활동을 사진을 첨부한 기록을 모아 학회 역사를 정리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성신지교’를 언급하고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를 추구하였던 시대 상황에서 창립된 우리 학회는 한일간의 현안에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성장해 왔다. 한일역사공동위의 출범 등도 우리 학회의 존재 의의를 부각시켰다고 생각한다. 일본인 학자들을 회원으로 받아들여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등 한일 양국에서 최고의 학회가 되도록 노력해 왔다.

그러나 covid19의 창궐과 한일 간의 정치·외교적 단절은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를 던져 준다. 우리 학회 창립회원 강창일 선생님은 주일대사로 일본에 부임하였는데 한국 정부에 불신을 갖는 일본 정계에서 냉대를 받아 성신 우호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귀국하였다.

식민지 사관과 반일민족주의를 학문적으로 극복하여 올바른 관계사를 정립하고자 하였던 학회 창립의 원점에 다시 입각하여 새로운 시대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과제가 창립 30년이 지난 오늘 우리 회원들에게 주어진 것은 아닐까 생각하며, 회고와 전망을 가름하고자 한다.